

과천소방서,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 마무리

기사입력시간 : 2023/08/29 [15:30:00]

정현희 기자



[FPN 정현희 기자] = 과천소방서(서장 나성수)는 지난 26일 청소년 수련관 수련활동팀을 마지막으로 관내 4개의 한국119청소년단 발대식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

1963년 '어린이 소방대'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'한국119청소년단'은 현재까지 '타인을 위한 봉사 · 사랑의 실천'이라는 이념 아래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시민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성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직된 청소년 단체다.

소방서는 시립갈현어린이집, 시청직장어린이집, 청소년 수련관 수련활동팀, 더불어 숲 공교육 등 총 4개의 한국119청소년단(단원 96명)을 구성했다.

발대식에서는 지도교사 위촉장 전수와 단원 선서, 단원 물품 · 단원증 배부, 단원 격려, 소방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.

단원들은 ▲119안전체험교육 ▲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▲화재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.

나성수 서장은 "한국119청소년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한다"며 "소방안전교육 체험과 화재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안전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"고 전했다.

정현희 기자 ha50154a@fpn119.co.kr